

# 광주·전남 민선 체육회장 선거 본격화

전남체육 선관위 구성 12월15일 투표  
광주 1월15일 선거...합의 추대 추진

전남도체육회 민선 체육회장 선거 날자가 12월15일로 결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민선 광주·전남 체육회장 선거가 본격화됐다.

22일 광주·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전남도체육회는 민선 체육회장 선거관리를 맡을 선거관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된 뒤 첫 회의를 가졌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2월15일을 전남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일로 최종 확정했다.

전남도체육회 선관위는 26일까지 체육회장 선거일을 공고한 뒤 대의원 구성과 관리에 나선다.

‘인구 150만명 이상, 200만명 이하 자치구는 투표권자 300명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남도체육회 선관위는 22개 시군체육회장과 육상, 축구, 수영 등 57개 종목별 회장, 이들이 추천한 대의원들을 무작위로 추첨해 투표인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남도체육회 선관위는 오는 11월20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 뒤 11월29일까지 선거인 후보 명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어 12



전남도체육회는 지난 21일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월4일부터 이를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으며 12월6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선거활동 기간은 12월6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으로 종목별 대의원 등을 상대로 표발같이 나선다.

박철수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최근 민선 체육회장 도전을 위해 사직했고 허정인 도체육회 부회장은 직을 내려놨다.

전남 민선 첫 체육회장에는 이들 외에 2~3명이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날 또 다목적체육관에서 민선 체육회장 선거 관련 시군체육관계자 합동 회의를 가졌다.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지원 계획 설명을 비롯한 민선 체육회장 선거 변경사항 및 선거 일정 등 민선 체육회장 선거 주요 사항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일을 내년 1월15일로 잡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11월1일 이사회와 임시총회

를 갖고 회장 선출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하며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선거 로드맵과 마찬가지로 1월15일 선거할 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광주체육회는 그동안 고문단, 부회장단을 대상으로 1, 2차 간담회를 갖고 민선 체육회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광주체육회는 이날 종목별 회장단 회의를 갖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선거를 지양하고 덕망 있는 인사를 민선 체육회장으로 추대하자고 합의해 향후 인선 과정이 주목된다.

시·도체육회가 선거체제로 돌입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통과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며 각종 선거에 체육 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실제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이래 지자체 단체장이 당연직 시·도 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개정된 법은 내년 1월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그 전에 광주·전남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 체육회까지 회장을 일제히 새로 뽑아야 한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 3년이다.



선동열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야구는 선동열' 출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듣고 있다. 뉴스

## 선동열 "나는 국보가 아니다"

반성과 성찰 담은 책 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선동열 전 야구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직접 쓴 에세이 '야구는 선동열'을 출간한 선전 감독은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전 감독은 "젊은 청년들에게 좌절을 극복한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었다. 1996년 출간한 에세이 '정면으로 승부한다'는 대필 작가가 쓴 것이고, 이번에는 직접 쓴 책이라 차이가 있다"고 출간 계기를 밝혔다.

이어 "후배들에게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남을 이길 수 있다'였다. 그걸 책에 담고 싶어 제목을 '야구는 선동열'로 지었다"며 "모든 사람들이 선동열이라고 하면 야구를 떠올리지 않나. 반대로 생각해서 제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전 감독은 "책을 쓰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쓰고 나서 보니 반성과 성찰인 것 같다"며 "좌절과 실패를 겪은 시기를 복기했을 때 늘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이었다. 책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책의 첫 장에는 '나는 국보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있다. 이 제목으로 시작한 1부를 통해 선전 감독은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스 진출한 첫해를 되돌아봤다.

선전 감독은 "모든 팬들이 내가 엘리트 선수로 순탄하게 야구를 했다고 알고 계신다. 일본 진출 첫해에 2군도 아닌 3군 교육리그에 갔던 것을 잊을 수 없다. 엄청난 좌절을 느꼈다"며 "이런 부분을 책으로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국보라고 해주는 야구팬들에게 부끄럽더라. 그래서 책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 라오스 야구대표팀 광주서 훈련

광주일고와 두 차례 친선경기  
29일 기아 챔피언스필드 방문

라오스 야구대표팀이 전지훈련차 광주를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초청으로 21일 한국에 들어온 라오스 대표팀은 22일 광주일고를 찾아 자체 훈련을 소화했다.

라오스 대표팀의 한국 방문은 지난 9월에 열린 분양 보라치트 라오스 대통령 주최 국민 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만수 전 야구감독이 약속한 양국 간 스포츠를 통한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라오스 선수들은 오는 30일까지 광주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23일에는 광주일고 선수들과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며 24일에는 라오스 대표팀과 광주일고 야구팀이 친선경기를 갖는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친선경기를 참관하고 라오스 선수들을 격려한 뒤 야구용품을 전달한다.

라오스 대표팀은 오는 2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를 방문, 합동 훈련을 갖게 되며 광주일고와 2차 친선경기도 갖는다.

라오스 대표팀의 광주 방문은 11월에 열리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와 한·아세안 특별 문화장관회의와 연계해 진행되는 만큼 라오스의 야구 저변 확대, 양국 우호와 협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오스 야구 발전은 스포츠를 통한 양국 간 이해 증진과 개도국의 인적 역량 강화의 대표적 사례다. 라오스에서 야구는 생소한 스포츠였지만 이만수 전 야구 감독 주도로 처음 야구협회가 창설됐다.

# 황윤호, 주전 향해 뚫는다

타율 3할... "자신감 얻은 시즌" 회고  
체력 보완으로 풀타임 출전 노력  
팬들 지어준 애칭과 응원에 감사

“주전이 목표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실망시키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 단계 성장을 꿈꾸는 KIA 타이거즈 황윤호(내야수)의 각오다.

황윤호는 최근 함평-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 중인 마무리캠프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내야수 박찬호, 최원준, 유민상 등과 함께 캠프 A조에 포함된 그는 주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황윤호는 “마무리 캠프에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는 그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시즌이었다. 비록 출전 경기 수는 57경기에 그쳤지만 타율 0.301(123타수 37안타) 9득점 9타점을 기록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특히 팀 내 공백이 생기면 유격수, 2루수, 3루수 등을 가리지 않고 투입돼 백업 멤버로서 중흥무진 활약했다.

황윤호는 “나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해다. 올해 경험을 토대로 내년에 더 잘하고 싶다. 자신감이 생기게 해준 시즌이었다”고 회고했다.

황윤호는 눈에 띄는 플레이를 많이 남겼다. 수비 부담이 큰 내야수지만 특유의 재치와 순발력으로 마운드의 부담을 줄여줬다. 하지만 집중력 저하로 송구 실책 등을 범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러 포지션을 맡다 보니 생긴 문제로 분석된다. 내년에는 어느 포지션에서 뛰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황윤호는 “수비를 나가게 되면 어느 포지션이든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올해 실수했던 부분은 핑계 대지 않겠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며 “이번 마무리캠프 때 기본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그의 내년 시즌 목표는 주전이다.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면 놓치지 않고 잡아낼 각오다.

황윤호는 “모든 선수라면 주전이 목표다. 나 역시 목표는 주전이다. 아직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했고 주전이 된 적도 없지만, 준비를 잘해내야 기회가 와도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면서 “내년 한 시즌을 풀로 뛰고 싶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력을 기를 계획이다. 현재는 몸이 왜소한 편이라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키워볼 생각이다. 방향이나 수비는 말할 것도 없다. 다방면으로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응원하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할 각오다. 그의 애칭은 ‘황잘또’이다. ‘황윤호 잘생긴 또라이’의 준말이다.

황윤호는 “팬들이 불러준 애칭이라면 감사하다. 거기에 토를 달 생각이 없다. 애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뜻 아닐까 싶다”고 웃어 보였다.

도약을 꿈꾸는 황윤호가 2020시즌에는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질주하는 황윤호. KIA구단 제공